

하느님 사랑

나를 사랑하면 제명을 지켜라

성 요한 14:15

인생의 목적

성모님(1978. 6. 1) - "너희가 지상에 사는 동안,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하느님을 공경하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께 봉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후세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행복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

성모님(1995. 3. 29) - "그렇다 나의 딸아, 너희들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한다! 지금 세상은 낮이 짝진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도 하지 않는다."

제 1계명

성모님(1982. 6. 18) - "너희들에게 하느님보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제가 있다면, 그 사제는 진실로 하느님의 사람도 아니며, 참된 카톨릭 교회 사제도 아니고, 다른 종파의 목자도 아니다. 하느님의 첫계명은 이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주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둘 수 없다."

사랑의 참뜻

예수님(1981. 6. 18) - "사랑의 의미를 아는자들이 너무 적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돌보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은 너희들의 하느님 이시다. 그 까닭은 인간이 하느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즉 빛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사랑의 참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그는 또한 영원한 불길, 聖神의 보유자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장궤

성모님(1979. 7. 14) - "나의 자녀들아, 성체안에 계신 너희들의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만남의 장소에서처럼 서 있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합당한 사랑과 공경의 예(禮)를 드러라."

어린 자녀들

성모님(1979. 10. 6) - "너희들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진리의 견고한 기초를, 신앙의 지식을 본받고 배워야 한다. 너희들은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느님 사랑을 가슴속에 담아야 한다."

회생 영혼들

성모님(1974. 7. 1) - "앞으로의 날들에 많은 회생영혼들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다른 영혼들을 대신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을 바치는 회생 영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렇다, 나의 자녀들아, 진심으로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태초에

예수님(1977. 5. 30) - 태초에 하느님께서서는 인류가 지켜야할 규정들을 내려 주셨다. 그것들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명령이며, 사랑으로 따라야할 명령이다. 사랑을 통하여서만 따를 수 있는 명령이다. 그 까닭은 두려움은 사랑을 낳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들은 천국에서 주어진 방대한 양의 메시지에서 추린 것이다. 이는 이 마지막 날들에 천국이 요구하는 바이며, 천주교신자로서 갖추어야 할 직관과 실천할 내용이다.

그분은 잊으신다

성모님(1973. 4. 22) - "늘 자비로우시고, 언제나 용서할 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나의 성자의 거룩한 성심으로 너희 자신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여라. 그 분은 용서할 하실 때, 잊으시는 분이다. 마음으로 뉘우치며, 다가오는 죄인들을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먼저 하느님을

성모님(1978. 5. 27) - "사람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류에게는 무익도, 사랑도 없을 것이다."

영적 자녀들

성녀 소화 레테사(1974. 9. 28) -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

여기 제 마음을 풍요롭게,

도둑이 뜰까봐, 잠귀 놓지도, 묶어 놓지도 않았읍니다.

언제나 자유로이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선물 당신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저는 당신의 것, 그곳 당신 왕국에 저를 돌며 주시고,

저에게는 당신 뜻만이 이루어 저시기를...

당신께서 인류에게 이끄실 전해주시니,

나는 기쁩니다. 제목은 '영적 어린이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

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매님들,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잊고, 오직 예수님과 우리들의 복되신 어머니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성모님(1981. 6. 13) - "너희가, 너희들의 어머니, 아버지, 자매, 형제나 처, 남편, 자식을 먼저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과 파멸의 경계선에 놓아야한다. 너희가 나의 성자보다 그들을 더 생각 한다면, 천국의 사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은 미정인 채로 남을 것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비밀 검사

성모님(1977. 11. 1) - "프리메이슨이라는 악한 비밀 결사조직에서도, 평화, 사랑, 형제애를 그들은 부르짖는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바탕을 둔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삼위(三位)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둔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조롱인 것이다!"

로사리오

성모님(1970. 10. 6) -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성자를 사랑한다면, 너희 각자는, 방황하며 잃어 버린 영혼 하나를 위해서, 기도로서 우리의 고통을 얻어 주고 도와야 한다. 목주의 기도를 바치며 그 뜻을 돌려 놓아다오. 너희들의 기도가 진실히 필요하구나."

머물러라

성모님(1972. 5. 30) - "사탄이 나의 성자의 교회에 들어왔다. 너희들이 나의 성자를 사랑한다면, 그 분과 함께 머물러라. 끊임없는 철야의 기도를 바치며 사탄을 쫓아내라."

성심(聖心)

베로니카-그분께서 옷자락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리신다. 그분의 가슴에 붉은 심장이 보인다.

예수님(1974. 10. 6) - "인류를 위한 나의 위대한 사랑의 상징을 모시고 있는 가정은 구원 받을 것이다."

평화, 형제애

성모님 - 너희 세상은 평화, 형제애를 의치고 있지만, 너희가 평화를 외칠수록 그 평화는 멀어져 가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가 하느님을 의면한 채, 평화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성자를 통해서 구원을 찾으며, 사랑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그 인간의 기도는 하늘로 오르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나의 성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 갈 수 없다.

성체(聖體)

성모님(1979. 11. 20) - "시간이 갈수록 성체안에 계신 나의 성자에게 대한 공경이 줄어들고 있다.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느냐? 세상 잡실에 계신 나의 성자를 위로해 드리며, 너희들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여라. 더욱 자주 그분을 찾아 뵈옵거라. 그분은 그분 집에서 의롭게 계신다. 성체안에 계신 나의 성자를 찾는 모두에게 풍성한 은총이 내려질 것이다."

인내하여라

성모님(1974. 12. 24) - "나의 딸아, 인내하여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갖고 인내하여라. 신덕송, 만덕송 애덕송을 자주 염하고, 묵상하여라. 신덕과 방덕과 애덕을 바치는 가운데 많은 진리와 빛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성모님(1975. 7. 25) - "오, 그렇다, 나의 자녀들아, 하느님만이 사랑의 참뜻을 알려주실 수 있다. 나의 성자께서 하느님 사랑의 완전한 모범을 너희들에게 보여 주셨다. 그 분이 받으신 고통의 시간

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저버렸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이 받으신 고통을 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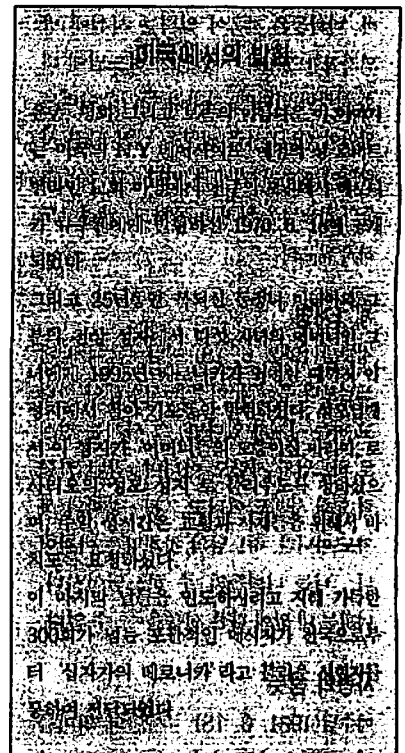
타협하지 마라

성모님(1979. 6. 18) -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언제나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이것이 나의 성자의 교회의 교리나 신앙을 타협하면서 하라는 말은 아니다."

간결한 표현

성모님(1973. 12. 29) - "나의 딸아, 간결하게 사랑을 표현해보자: 너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너희는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같이 하느님의 성물들을 끌리치는 이유가 무엇이나? 축복받은 모상들을 치워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나?"

스카폴라, 성모님, 영모님 구입하세요



OUR LADY OF THE ROSES MARY HELP OF MOTHERS SHRINE
P.O. Box 52, Bayside, NY 11361 (718)961-8865, 24 hours
어머니들의 도움어린 로사리오의 성모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4-7 안흥B/D 207 Tel 02-419-5450